

2011

Two Speed World

경제연구실 jplee@lgeri.com

2011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세

신흥국 인플레이 발생 가능성

유럽 국가부채위기 지속

금속·곡물의 가격 급등 리스크

아시아 경제 호조와 내수시장, 인프라시장 확대

자원 보유국의 개발 프로젝트 재시동

녹색 산업의 성장 지속과 전기자동차 원년

제품 및 서비스의 스마트화

재정확대 효과의 소진과 신흥국의 금융긴축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 조정이 더블딥으로까지 빠질 가능성은 낮으며, 2011년 하반기에는 선진국의 금융완화 효과 지속과 신흥국의 긴축정책 일단락으로 세계경제의 하강세도 점차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흥국의 인플레이 발생 가능성, 유럽 국가부채 위기, 금속·곡물의 가격 급등 리스크 등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2011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부진과 개도국의 고성장세 지속이라는 차별화가 다소 심해지겠지만 각종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평균적으로는 3%대 후반의 건실한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종 리스크 속에서도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기회 요인으로 △ 아시아 경제 호조와 내수시장, 인프라시장 확대 △ 자원 보유국의 개발 프로젝트 재시동 △ 녹색 산업의 성장 지속과 전기자동차 원년 △ 제품 및 서비스의 스마트화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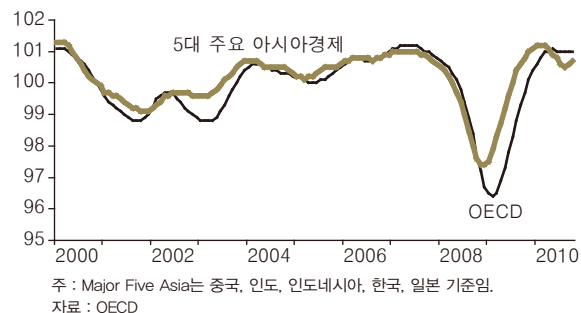
2011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세

이지평 수석연구위원 jplee@lgeri.com

재정 확대 효과의
소진과 신흥국의 금융
긴축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1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조정 예상

〈그림 1〉 OECD 경기선행지수



2011년 하반기까지는
신흥국의 긴축정책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의 하강세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성장 격차 지속

〈표 1〉 세계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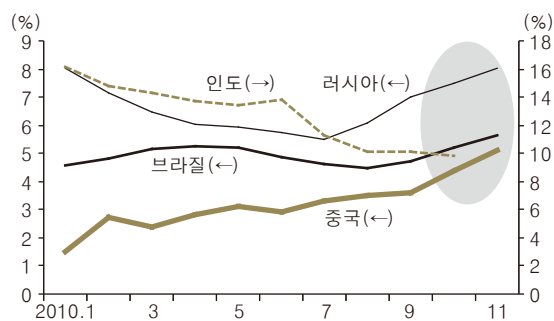
	2009	2010	2011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세계경제(PPP)	-0.6	4.7	3.7	3.8	3.7
세계경제(시장환율)	-1.4	3.7	2.7	2.8	2.7
선진국	-3.4	3.0	1.8	1.9	1.9
미국	-2.6	2.7	2.2	2.4	2.3
일본	-6.3	4.3	1.0	1.1	1.1
유로	-4.1	1.6	1.0	0.8	0.9
개도국	2.5	6.7	5.9	6.0	6.0
아시아	6.9	8.9	7.6	7.8	7.7
중국	8.7	9.8	8.4	8.5	8.5
인도	7.4	8.9	9.1	9.0	9.1
동남아 등	1.7	6.5	4.0	4.9	4.4
중남미	-1.7	5.2	4.3	4.0	4.2
브라질	-0.2	7.5	5.0	4.2	4.6
중동·북아프리카	2.0	4.3	4.9	5.3	5.1
아프리카(사하라이남)	2.6	5.2	5.0	5.1	5.0
CIS	-6.4	4.6	4.5	4.7	4.6
러시아	-7.9	4.2	4.1	4.3	4.2
기타 CIS	-3.1	5.5	5.5	5.7	5.6
동구	-3.6	3.2	3.4	2.8	3.1
국제유가(WTI, \$/1배럴)	61.9	79.5	86.9	90.6	88.7

신흥국 인플레이 발생 가능성

강중구 책임연구원 jkookang@lgeri.com

내수 성장으로의
구조전환은 신흥국들의
인플레이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림 2〉 BRICs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미국 노동부 통계

막대한 금융안정
기금으로 유럽국가부채
위기를 막을 가능성이
높으나 투자자의
불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부채위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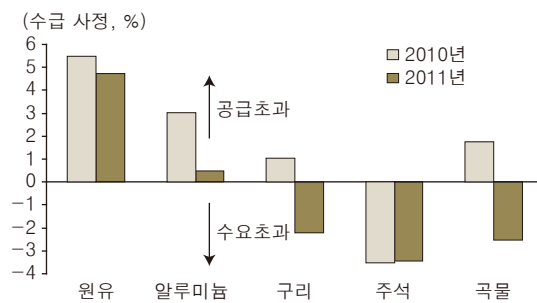
유승경 연구위원 seungyoo@lgeri.com

금속·곡물의 가격 급등 리스크

이광우 선임연구원 kwlee@lgeri.com

수급이 불안한 구리,
희토류 등의 금속이나
밀 등의 곡물이
가격이 급등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원자재 수급 전망



주 : 수급 사정 = ((공급 - 수요) / 수요)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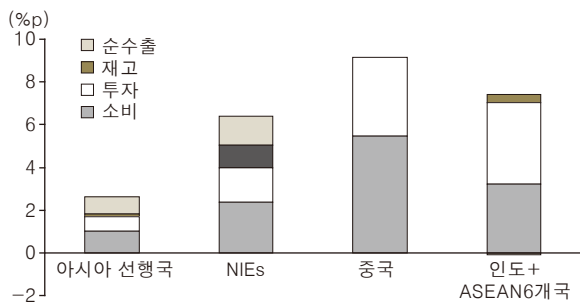
자료: EIA, USDA, ICGS, CRU Group, RBC Capital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소비신장세에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 호조와 내수시장, 인프라시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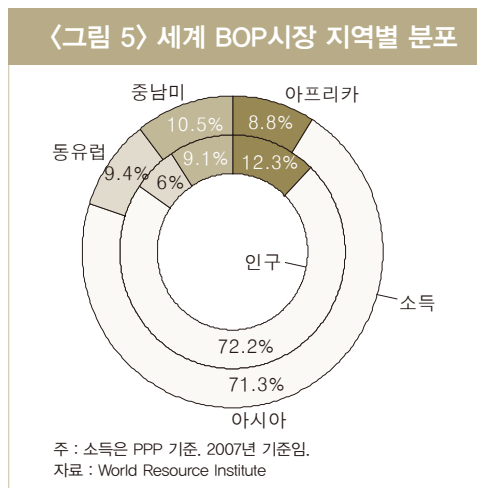
윤상하 선임연구원 shyoon@lgeri.com

〈그림 4〉 아시아 지역 GDP 수요 항목별 성장기여도



주 : 2010~2011년 평균임
자료 : IMF, LG경제연구원

도시화와 함께 볼룸존, BOP 등의 소비시장과 인프라 관련 시장의 급성장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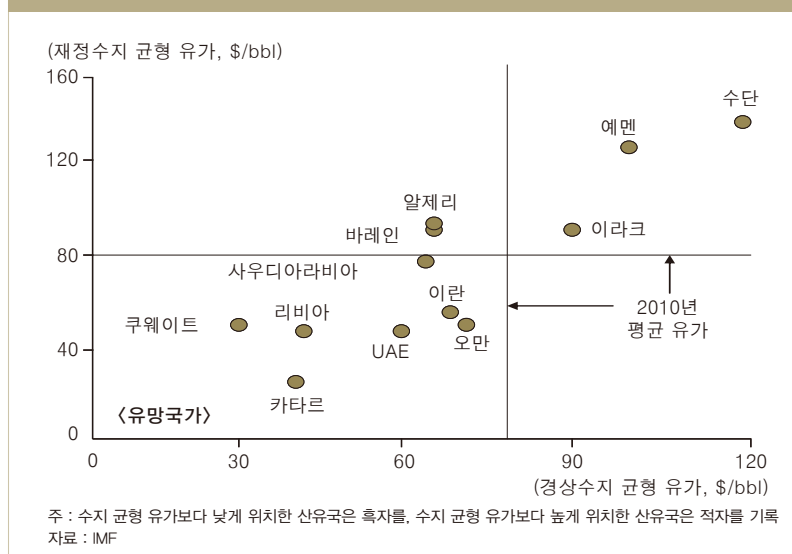


중동국가를 중심으로
소비와 투자 수요의
확대가 예상된다.

자원 보유국의 개발 프로젝트 재시동

이광우 선임연구원 kwlee@lgeri.com

〈그림 6〉 중동 산유국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균형 유가 수준



자원 보유국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주변국으로의 수요
확산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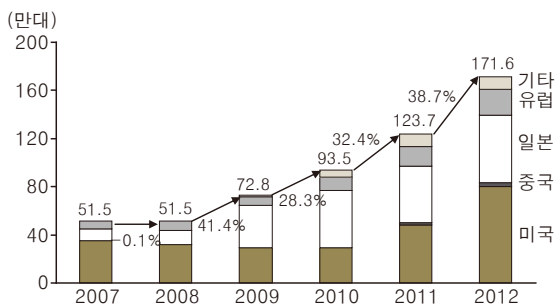
포스트 교토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녹색산업 성장
모멘텀은 유지될
전망이다.

녹색 산업의 성장 지속과 전기자동차 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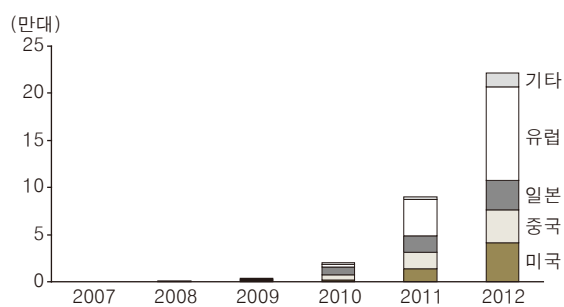
이지평 수석연구위원 jplee@lgeri.com

2011년에는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00만대를
초과하고 전기차도
급증할 전망이다.

〈그림 7〉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계시장 추이 및 전망



〈그림 8〉 전기자동차 세계 시장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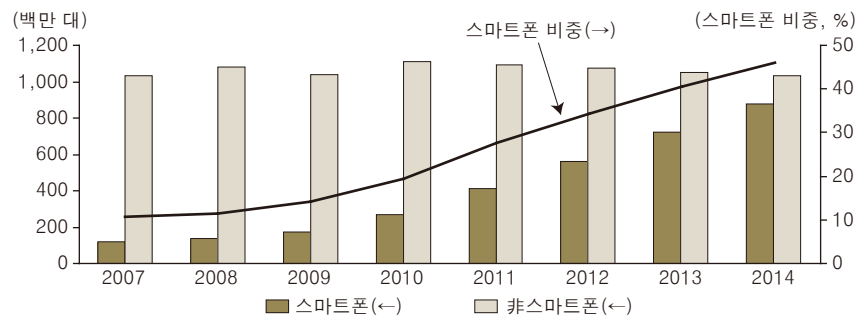
전자기기의 스마트화는
성숙된 내구재
시장에서도 수요를
자극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품 및 서비스의 스마트화

이지평 수석연구위원 jplee@lgeri.com

정보 · 서비스 · 에너지의 스마트화

〈그림 9〉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스마트화가 TV,
자동차 등 다양한
기기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품질 안정성 중시하는 새로운 스마트 기기 수요 확대

에너지의 스마트화
흐름과 함께 AMI가
보급되고 이에 대응한
전자기기, 자동차의
스마트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다.

www.lgeri.com